

운영난 겪는 생협

1학기 매출 전년 대비 74.8%↓…“직원 고용 보장도 불투명”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서울】 코로나19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경희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협 학생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생협이 운영하는 캠퍼스 내 매점, 카페, 식당, 문구점의 매출은 지난 1학기 기준(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년 동기대비 각각 83.1%, 89.9%, 77.2%, 79.2%씩 감소했다. 전체 매장의 매출로 따지면 74.8%(29억 원 상당)가량 감소한 것이다.

생협의 안정적 운영 불투명

생협은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직원을 유급휴직(기준 임금의 70% 상당) 체제로 전환하고, 이번 9월부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무급휴직 체제(기준 임금의 50% 상당)로 전환해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최대 180일로 제한되어있어, 내년 2월이 지나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다면 생협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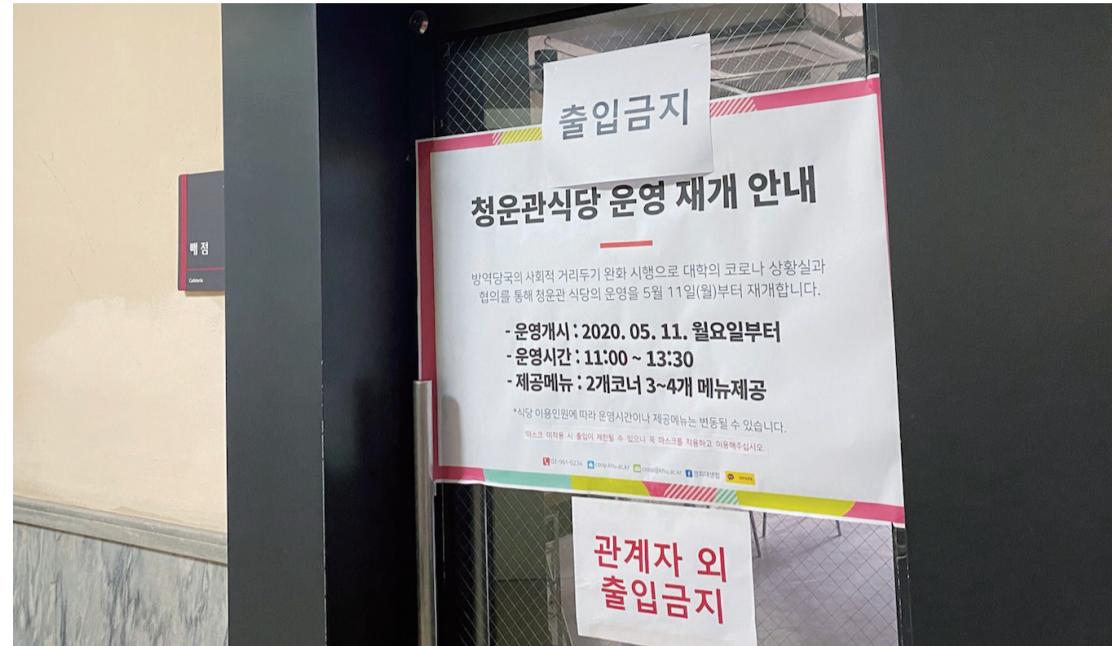
생협은 우리학교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이 대학 내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출자하여 2003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좋은 품질의 재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복지환경 개선 등의 형태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반환하고 있다. 독립법인인 생협은 대학본부의 재정과는 별도로 생협의 매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이 다른 기관에 비해 더 심각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민화 생협 사무국장은 “올 3월부터 생협의 매출은 코로나19가 없던 시절의 방학기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협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생협 직원들의 급여나 최소유지 비용 지출을 위해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코로나 사태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생협 직원들의 고용 보장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협 학생운영위원회 이현정(국제통상금융투자학 2018) 위원장 또한 생협 운영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위원장은 “생협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전 지점이 휴업상태며, 식당은 점심시간에만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져 생협의 운영난이 장기화된다면, 생협의 운영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협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운영을 중단하고 생협의 해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생협 조합원의 과반수가 의결에 참석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해산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그만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생협의 정상적인 운영도 해산도 이루어지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혹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어 생협이 해산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난으로 도서관에 위치한 생협 매장이 폐쇄되었다.

(사진=생협 학생운영위원장 제공)

나게 될까. 생협이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외부 업체들이 캠퍼스 안에 입점하게 될 경우, 학내 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다. 외부 업체들은 학교에 납부할 고액의 임대료와 수익 창출을 위해 캠퍼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높은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곧 구성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생협 해산 시 구성원 피해 불가피

캠퍼스 내 소비에서 발생한 수익이 학교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현재 생협은 학내 구성원의 소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학교의 복지환경 개선이나 장학금 등의 형태로 헌원하고 있다. 그러나, 생협이 사라지고 외부 업체가 입점한다면 학내 구성원들의 소비로 창출되는 수익은 모두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

대학본부 측은 생협 운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상태다. 대학본부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희포 차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생협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본부는 생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비와 식당에서 발생하는 식재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어 “생협이 여러 사업을 대학본부에 제안하고 그 사업의 내용 중 대학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으면 대학본부도 절차를 거쳐 생협과 함께 협업할 의향이 있다”며 “이를 통해 생협은 운영난을 타개하고 대학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때보다 학내 구성원들의 소

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생협은 학내 구성원들의 소비를 통해서만 운영되는 구조”라며 “생협에서의 소비가 다시 이루어져 생협의 원활한 운영이 이어지고, 이를 통해 생협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복지를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생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공서적 등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생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의 방역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니 많이들 방문해달라”고 전했다.

생협에서 운영하는 청운관 1식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 청운관 2식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의대와 간호·이과대에 위치한 매점은 24시간, 청운관 매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코로나 극복 경희후배사랑 캠페인’… 선배 응원 목소리 이어져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우리 학교 동문들이 두 팔 걷고 나섰다. 현재 동문들은 대외협력처가 진행하는 ‘코로나 극복 경희후배사랑 캠페인’을 통해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재학생에게 온라인 모금을 통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문들의 응원 메시지를 비롯해 인터뷰 전체 영상, 메이킹 필름 등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우리학교를 졸업한 여러 유명인사들이 후배들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 우리학교를 졸업한 스피드 코리아 대표 오재욱 동문(체육학 1994)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이 뛰는 대로 힘차게 나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그 외에도 텔런트 김성령(연극영화학 2004), 가수 규현(포스트모던음악학 2006), 가수 나태주(태권도학 2009), 국회의원 박홍근(국어국문학 1998), 백두산 약국 대표 하태수(약학 1997), 미술

작가 육근병(미술교육학 1978), 성악가 정경(성악 2001) 등의 동문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외협력처는 응원 메시지 접수와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라면 누구든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글 설문지를 통해 후배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대외협력처는 “실시간으로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대외협력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사랑나누기’라는 이름의 온라인 모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등록금, 생활비, 진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코로나19로 가계곤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이후 등록금 외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과 꿈 도전 장학금에도 일부 지원될 예정이다.

대외협력처 김정미 과장은 “사회 각 분야에 자리한 여러 동문들의 응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에서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친 재학생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희 동문과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문들에 딥하는 후배들의 영상 메시지도 현재 기획 단계에 있다”며 “총학생회와 학교 홍보 동아리 ‘희랑’이 협업해 제작 중이며, 10월 말에 완성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